



새해에는 지역경제 활활 타오르길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해 박주선·김재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경제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이대론 광주-무안공항 둘 다 죽는다

국토부 '지자체 합의후 통합' 재천명

광주시-전남도 마찰속 정부 지원 '뒷짐' 호남고속철 개통엔 승객 67%까지 감소

국토해양부가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방향을 재확인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합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선 지역협의 후 통합'을 천명, 국가기반시설의 이전·통합에 앞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조건 통합에 반대했던 광주시는 어느 정도 소극을 거둔 반면 정부의 통합방침만 믿어왔던 전남도로서는 돌출 변수를 만난 셈이다.

◇광주시·전남도 마찰 속 정부는 '뒷짐'=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이 같은 정부 논리로 광주·전남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2011년부터 5년간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와 지원은 아예 없는 데다 통합이 계속 미뤄질 경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국내선 수요의 25~67%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항공수요가 급속히 줄어듦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 신규투자는 없고 공항 이용객들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항을 둘

려한 광주·전남의 마찰은 더 심해지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 일반공항인 광주공항이 동반하락할 수도 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공항 정책방향으로, 운송환경 전망과 항공수요 예측, 공항별 투자계획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유독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 대해서만은 신규 투자계획이 아닌 통합에 대한 논리만 실었다.

지자체 간 합의의 여부와 호남고속철 개통시기 등을 감안해 통합시기를 검토하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모두 이전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항 통합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찰을 빚자 그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는 뒷짐만 지겠다는 격이다.

◇암울한 광주·무안공항의 미래=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선 전용인 광주공항의 이용객은 지난 2009년 136만3000명, 2010년 136만4000명, 2014년에는 최저 142만6000명~최고 15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뒤 2015년에는 102만3000

명~121만1000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안공항의 국내선 역시 2009년 2만명, 2010년 2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2만1000명, 2015년에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6000명~8000명으로 하락한다. 다만 국제선만은 역시 2009년 3만8000명, 2010년 8만3000명, 2014년 9만6000명~9만9000명, 2015년 9만9000명~10만4000명으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광주공항 국내선과 무안공항의 국내선·국제선을 모두 합쳐도 무안공항이 개항되기 전인 2006년 광주공항의 이용객 수 150만5000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국내 간선노선 및 중·단거리의 국제노선 수요 처리)으로, 광주·군산·여수공항은 일반공항(지방도시 기반 국내선 및 일부 국제선 수요 처리)으로 지정했지만, 그에 걸맞는 투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대 한 교수는 "지역의 중요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에 5년 동안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자체 간 마찰을 이유로 신규투자를 안 할 경우 지역공항의 침체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항에 2015년까지 2조1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만 89.9%인 1조7999억원을 투입하기로

■ 각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변화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예상)	연평균 증가율
인천	27,662	30,753	29,563	28,080	33,132	4.16%
김포	1,420	1,671	1,969	2,496	3,114	21.69%
김해	2,310	2,738	2,765	2,319	3,070	7.37%
제주	900	1,265	743	626	744	-4.65%
대구	295	310	231	91	133	-18.06%
청주	134	161	126	32	122	-2.32%
무안	-	11	104	38	83	-
양양	4	2	2	-	7	-
계	32,725	36,911	35,503	33,682	40,405	5.41%

■ 각 공항별 국내선 이용객 변화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예상)	연평균 증가율
인천	530	474	410	469	542	0.56%
김포	12,347	12,140	12,295	12,874	14,577	4.24%
김해	4,761	4,665	4,437	4,551	5,110	1.78%
제주	11,210	11,032	11,705	13,017	15,203	7.91%
청주	866	872	917	991	1,186	8.18%
대구	899	867	848	935	1,034	3.56%
광주	1,505	1,415	1,362	1,363	1,364	-2.38%
무안	-	4	26	20	24	-
여수	602	656	642	613	647	1.82%
군산	155	133	100	156	179	3.66%
사천	225	214	204	188	164	-7.60%
울산	1,200	1,208	1,131	1,013	1,036	-3.61%
원주	80	79	79	74	72	-2.60%
포항	347	298	268	304	334	-0.95%
양양	48	33	8	3	10	-
계	34,775	34,090	34,432	36,571	41,482	4.51%

했다.

◇지역 살리는 대응적 논의해야=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및 공항 통합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항 통합논의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더욱 꼬이거나 한동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 간 갈등은 결

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신규 투자 소외와도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절제된 입장차를 좁히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공동 대응하는 '원·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보고서 100% 없앤다

하루 수만장 종이·행정력 낭비 줄이기

광주시가 각 실국별로 하루에 수천장씩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를 없애기로 했다. 종이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실제로 정착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5급 사무관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됐는데 불필요한 업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고서는 100% 없애고, 시장에게 보고할 때도 노트에 적어 구두로 보고한 다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당 하루 3~4개씩 작성해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등에게 각 1부씩 최소 5~6부씩을 제출하는 번거로운 결제 절차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6국·1본부 45과가 각종 회의, 위원회, 보고, 기타 행정행위 등을 위해 매일 만들어내는 보고서는 수 만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시장은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그 시간에 직원들이 창조도시라는 그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 직원은 "간부급 직원들이 보고서 없이 업무를 파악하고 워싱턴에 보고할 수 있을 지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서울과 광주 간 새로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을 대비, 기획조정실 산하에 전략기획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흑산도에 50석 소형 경비행장 영산호 일대 수상비행장 건설

고흥엔 레저용 다목적 경비행장

흑산도에 50석 규모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경비행장이 건설되고 영암 영산호 일대에 수상비행장 건설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가 4일 확정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흑산도에 활주로 1200m급 규모의 경비행장 건설이 추진된다.

신안군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서남해안권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963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흑산도와 흥도를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이 2009년 37만명 등 지난 10년간 평균 3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고 무안공항 및 수도권, 동남아 노선과 연결하면 오는 2017년 87만명(수도권 72만

명·서남권 13만명), 2035년 90만명의 항공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암 영산호 일대는 수상비행장 개발 후보지(10개소) 중 한 곳에 포함돼 시범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개발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시설·운항 기준 마련 및 정박장·진입도로 등을 지자체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흥에는 장기적으로 항공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4인승의 레저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다목적 경비행장(Air-Park) 건설 계획을 세우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개발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겨울을 일본에서~~

- ★ 북큐슈 야마나미 통나무 펜션 (벃부족탕체험)
4일 ₩ 429,000 출발일 : 2/5,8,11,13,16,20
- ★ 구종산 스지유 마을 전통로칸 숙박
4일 ₩ 569,000 출발일 : 1/8, 30, 2/26
- ★ 일본에서 만나는 네덜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템보스
4일 ₩ 599,000 (불포함사항 : 부산출도착) 출발일 : 1/25
- ★ 부산에서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가 4일
(오사카, 와카야마, 쿠시모토,미나베)
4일 ₩ 1,090,000 출발일 : 1/24

1월 한달만. 무안에서 떠나는 꿈!!

3박 4일 특가 ₩799,000

출발일 : 1/6,10,18,22,26

- ★P.I.C. GOLD OCEANA <슈퍼리어> ₩1,399,000~
- ★ROYAL TOWER <더럭스> ₩1,499,000~
- ★팜 데오팔레스 골프 54H ₩1,499,000~
- ★팜 고품격 골프 36H (NIKKO or HILTON HOTEL) ₩1,499,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중식(골프-2일,3일)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4-1호]

•2억원 영업보통금 기업/여행업체 기업합계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역

•공동조건 :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통 기업(예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항공 : 1인/기타 : 1인) : 불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이달의 여행가 자랑하는 곳 **조이여행사**